



경제학에서 차선의 문제

[每一非] Today's 비문학

독해 포인트 :관점의 비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 즉 '파레토 최적' 상태를 달성하려면 모든 최적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파레토 최적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n 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 어떤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n-1$ 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상황이 $n-2$ 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딥시**와 **랭커스티**는 이러한 통념이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님을 보였다. 즉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이미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충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더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최적 조건의 일부는 충족되지만 나머지는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경제 전체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현재 충족되고 있는 일부의 최적 조건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하나의 왜곡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왜곡이 초래되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최적 조건들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최적 조건의 일부가 항상 충족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된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차선(次善)의 문제**라고 부른다.

② 차선의 문제는 경제학 여러 분야의 논의에서 등장한다. 관세동맹 논의는 차선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동맹이란 동맹국 사이에 모든 관세를 폐지하고 비동맹국의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든 국가에서 관세가 제거된 자유무역을 최적의 상황으로 보았고, 일부 국가들끼리 관세동맹을 맺을 경우는 관세동맹을 맺기 이전에 비해 자유무역의 상황에 근접하는 것이므로 관세동맹은 항상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바이너**는 관세동맹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관세동맹의 효과를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동맹국 사이에 새롭게 교역이 창출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비동맹국들과의 교역이 동맹국과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창출은 상품의 공급원을 생산비용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이 증대되지만, 무역전환은 공급원을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비용이 높은 국가로 바꾸는 것이므로 효율이 **감소**한다. 관세동맹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의 여부는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달려 있다. 무역전환 효과가 더 크다면 일부 국가들 사이의 관세동맹은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③ 차선의 문제는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와 상품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오랜 논쟁에서도 등장한다. 경제학에서는 세금이 시장의 교란을 야기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파레토 최적 상태이지만, 세금 부과는 불가피하므로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시장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상품에 간접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그 상품과 다른 상품들 사이의 상대적 가격에 왜곡이 발생하므로 이 상대적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접세가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헨더슨**과 같은 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직접세가 노동시간과 여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라고 **리틀**은 주장하

였다. 한 상품에 부과된 간접세는 그 상품과 다른 상품들 사이의 파레토 최적 조건의 달성을 방해하게 되지만, 직접세는 여가와 다른 상품들 사이의 파레토 최적 조건의 달성을 방해하게 되므로, 직접세가 더 효율적인지 간접세가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리틀은 여러 상품에 차등적 세율을 부과할 경우, 직접세만 부과하는 경우나 한 상품에만 간접세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지만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 했다. ㉔ **클레트와 헤이그**는 직접세를 동일한 액수의 간접세로 대체하면서도 개인들의 노동 시간과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여가와 보완관계가 높은 상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레저 용품처럼 여가와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그 상품의 소비를 억제시킴으로써 여가의 소비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문제 1] '차선의 문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 ① 파레토 최적 조건들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을 때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차선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 ② 전체 파레토 조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선의 상황을 찾으려면 나머지 조건들의 재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 ③ 주어진 전체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최적 상태를 달성했던 부문의 효율성이 저하되기도 한다.
- ④ 차선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여러 경제부문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⑤ 경제개혁을 추진할 때 비합리적인 측면들이 많이 제거될수록 이에 비례하여 경제의 효율성도 제고된다.

[문제 2] A, B, C 세 국가만 있는 세계에서 A국과 B국 사이에 관세동맹이 체결되었다고 할 때, ㉔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례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은? 2)

- ① 관세동맹 이전 A, B국은 X재를 생산하지 않고 C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관세동맹 이후에도 A, B국은 X재를 C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 ② 관세동맹 이전 B국은 X재를 생산하고 있었고 A국은 최저비용 생산국인 C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관세동맹 이후 A국은 B국에서 X재를 수입하게 되었다.
- ③ 관세동맹 이전 A, B국은 모두 X재를 생산하고 있었고 C국에 비해 생산비가 높았다. 관세동맹 이후 A국은 생산을 중단하고 B국에서 X재를 수입하게 되었다.
- ④ 관세동맹 이전 B국이 세 국가 중 최저비용으로 X재를 생산하고 있었고 A국은 X재를 B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관세동맹 이후에도 A국은 B국에서 X재를 수입하고 있다.
- ⑤ 관세동맹 이전 A, B국 모두 X재를 생산하고 있었고 A국이 세 국가 중 최저비용으로 X재를 생산하는 국가이다. 관세동맹 이후 B국은 생산을 중단하고 A국에서 X재를 수입하게 되었다.

[문제 3] <보기>의 상황에 대한 ㉠ ~ ㉡의 대응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보 기>			
일반 상품을 X와 Y, 여가를 L이라고 하고, 두 항목 사이에 파레토 최적 조건이 성립한 경우를 '⇔',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라는 기호로 표시하기로 하자.			
㉠	㉡	㉢	㉣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황	X에만 간접세가 부과된 상황	직접세가 부과된 상황	X, Y에 차등 세율의 간접세가 부과된 상황
$X \Leftrightarrow Y$	$X \Leftrightarrow Y$	$X \Leftrightarrow Y$	$X \Leftrightarrow Y$
$X \Leftrightarrow L$	$X \Leftrightarrow L$	$X \Leftrightarrow L$	$X \Leftrightarrow L$
$Y \Leftrightarrow L$	$Y \Leftrightarrow L$	$Y \Leftrightarrow L$	$Y \Leftrightarrow L$

- ① ㉠은 직접세가 여가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 ② ㉠은 ㉡와 ㉢의 효율성 차이를 보임으로써 립시와 랭커스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③ ㉠은 ㉡와 ㉢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을 비판한다.
- ④ ㉠은 ㉡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립시와 랭커스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⑤ ㉠은 ㉡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를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효율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Today's 비문학 해설

2015년 법학적성시험(Leet)에 출제된 비문학 지문이다. 일단 쉽지 않다. 수능 비문학과 Leet 비문학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수능 비문학은 99.9% 지문 내용의 확인에서 답을 도출하는 유형이라면, Leet 지문의 경우 내용을 이해한 후 순수한 추론에 바탕을 둔 문제들도 간혹 보인다. 이 교재에 수록한 Leet 지문은 순수 추론에 바탕을 둔 것은 하나도 없다. 훌륭한 선생이 (물론 나를 가리키는 말임) 수능과 최대한 비슷한 출제 유형의 문제를 선별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Leet 지문은 추론이 아니라 수능과 같이 확인이 먼저인 문제들이다. 미리 말하지만 지문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뭔가 함축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미리 겁먹고 지문을 이해하고, 추론하려 애쓰는 하수같은 태도는 개나 주기 바란다. 비문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적인 확인이다.

물론 지문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책상에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선생이 이해하지 말고 확인하라고 했는데'를 외치면서 괴로워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이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글을 만났을 때 무리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먼저 지문 내용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말이다. 충분히 알아 먹었길 바란다.

우선 첫 지문을 보자. Leet 문제답게 문단이 되지게 길다.

전문용어로 '다구리'라는 것을 당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1대 17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물론 되지게 맞을 확률이 99.9% 겠지만, 0.1%의 확률에 가능성을 걸어 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답은 하나 밖에 없다. 17명과 동시에 싸워서 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17명과 한 놈씩 1 : 1로 붙는다면 그래도 동시에 싸우는 것 보아야 승률이 높지 않겠는가? (실제로 해 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 필요 없다.)

이 지문도 길다. 그렇다면 이 지문 독해의 원리는 '다구리'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이겠다.(요즘 국어 강의들을 보면 먼 원리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무슨 독해법, 무슨무슨 독해 원리 등등 ... 다들 이름을 막 붙이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니 나도 추세에 맞추어 ㉠ 문단에 사용할 나의 독해법은 '다구리의 원리'라고 이름 붙이겠다.

지문을 통째로 보지 않고 끊어서 읽어 나가겠다. 끊는 기준은 문장이 아니라 '소화제' 단위다. 설마 선생이 말한 '소화제'를 '까스명수'로 이해 했다면 곤란하다. 작은 주제를 말한 것이다.

㉠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 즉 '파레토 최적' 상태를 달성하려면 모든 최적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렇다. '파레토 최적 상태'의 개념과 조건을 설명했다.

파레토 최적 상태 =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 (개념)
= 최적 조건의 동시 충족 (조건)

두 번째 화제를 찾아 보자.

파레토 최적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n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 어떤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n-1 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상황이 n-2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쉽다.

파레토 최적 상태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을 설명하고 있다.

파레토 최적에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충족되지 않은 조건이 적을수록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립스와 랭커스터는 이러한 통념이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님을 보였다. 즉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이미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충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더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통념에 대한 '립시와 랭거스터'의 반박을 소개하고 있다.

립시와 랭거스터는 효율성 조건이 파괴된 상태라면 충족되는 조건이 많다고 해서 더 효율적인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최적 조건의 일부는 충족되지만 나머지는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경제 전체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현재 충족되고 있는 일부의 최적 조건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하나의 왜곡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왜곡이 초래되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최적 조건들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최적 조건의 일부가 항상 충족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된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차선(次善)의 문제라고 부른다.

현실의 문제를 바탕으로 '차선의 문제'가 도출되는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현실에서는 파레토 최적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N-2의 상황일 때, 충족되지 못한 -2의 조건을 충족하려 노력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새로운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선불리 부족한 조건을 충족하지 말고, 현재 상태(파레토 최적이 붕괴된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조건을 찾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는 더 나은 방법이다. 이러한 문제를 '차선의 문제'라고 한다.

결국 '차선의 문제'가 왜 도출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독해력이 좀 있는 학생이라면 심게 읽었을 수도 있지만

침묵 초연했을 때 무슨 소리인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가? 곱어서 하나하나 소화해 단위로 분석을 하니깐 훨씬 잘 읽히지 않나?

이게 바로 '다구리의 원리'이다. 잊지 말도록 하자.

두 번째 문단도 되지게 길다. 그렇다고 당황할 우리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다구리의 원리'가 있다.

우선 첫 부분을 보자.

㉔ 차선의 문제는 경제학 여러 분야의 논의에서 등장한다. 관세동맹 논의는 차선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동맹이란 동맹국 사이에 모든 관세를 폐지하고 비동맹국의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든 국가에서 관세가 제거된 자유무역을 최적의 상황으로 보았고, 일부 국가들끼리 관세동맹을 맺을 경우는 관세동맹을 맺기 이전에 비해 자유무역의 상황에 근접하는 것이므로 관세동맹은 항상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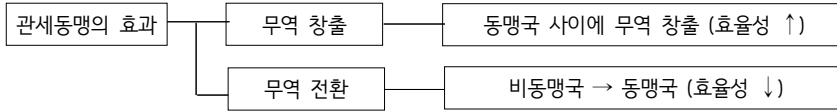
차선의 문제를 보여 주는 사례로 '관세 동맹 논의'를 설명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유무역 주의자'들의 견해가 소개되어 있다.

자유무역 주의자들은 '모든 국가에서 관세가 제거된 상태'를 파레토 최적의 상태로 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제한적으로 관세가 제거된 '관세동맹'은 파레토 최적의 상태에 근접하는 것이므로 항상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너는 관세동맹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관세동맹의 효과를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동맹국 사이에 새롭게 교역이 창출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비동맹국들과의 교역이 동맹국과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창출은 상품의 공급원을 생산비용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이 증대되지만, 무역전환은 공급원을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비용이 높은 국가로 바꾸는 것이므로 효율이 감소한다. 관세동맹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의 여부는 무역창

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가에 달려 있다. 무역전환 효과가 더 크다면 일부 국가들 사이의 관세동맹은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다음 부분의 이러한 '자유무역 주의자'의 견해에 대한 '바이너'의 반박을 설명하고 있다.
 지문을 독해하다가 사람 이름이 언급되어 있으면 무조건 표시해 두는 습관을 기르자. Why? 그냥 무조건.
 바이너는 자유무역 주의자들과는 다르게 '관세동맹'이 오히려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세동맹의 효과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㉒ 문단은 '관세동맹의 효율성'에 관한 대답되는 견해가 소개되어 있다.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똥개가 똥을 지나칠 확률이 높지 출제자들이 이런 부분을 지나칠 리가 없다. 대답되는 견해는 반드시 사실적으로 정리해 두고, 더 중요한 것은 대답되는 견해의 내용에만 집착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What의 문제를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항상 '무엇에 대한(관세동맹의 효과)' 견해의 대답인지 습관적으로 확인하자.

세 번째 문단이다. 이 또한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할 만큼 되치게 긴 문단이다. 겁먹지 말자. 우리에게는 '다구리의 원리'가 있다.

㉓ 차선의 문제는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와 상품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오랜 논쟁에서도 등장한다. 경제학에서는 세금이 시장의 교란을 야기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파레토 최적 상태이지만, 세금 부과는 불가피하므로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시장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㉔ 문단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논쟁'을 '차선의 문제'의 또 다른 예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상태가 '파레토 최적'이라고 보지만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조건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안 봐도 드러마다. 다음 부분은 '새로운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소개될테니 그 부분만 눈에 힘주고 읽어 내면 된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상품에 간접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그 상품과 다른 상품들 사이의 상대적 가격에 왜곡이 발생하므로 이 상대적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접세가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㉔**핸더슨**과 같은 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직접세가 노동시간과 여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라고 ㉔**리틀**은 주장하였다. 한 상품에 부과된 간접세는 그 상품과 다른 상품들 사이의 파레토 최적 조건의 달성을 방해하게 되지만, 직접세는 여가와 다른 상품들 사이의 파레토 최적 조건의 달성을 방해하게 되므로, 직접세가 더 효율적인지 간접세가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리틀은 여러 상품에 차등적 세율을 부과할 경우, 직접세만 부과하는 경우나 한 상품에만 간접세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지만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 했다.

시장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한 견해의 대답이 소개되어 있다.
 .**핸더슨** : 간접세 < 직접세
 .**리틀** : 핸더슨의 주장은 '노동시간과 여가'에 관해 뉘뿔도 모르면서 잘못된 전제로 말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간접세와 직접세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여러 상품에 차등적 세율을 부과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제기 했으나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리하자면 여러 상품에 차등적 간접세 > 한 상품에만 간접세 or 직접세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 차이가 정리가 되었는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도 알아 듣지 못한다면 선생은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머리가 나쁜거다.(농담 아님!) 혹시 잘 모르겠다면 여기서 포기하면

스스로 머리가 나뻘을 증명하는 것이니 알아 들을 때 까지 선생의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 보기 바란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보자.

◎**콜레트와 헤이그**는 직접세를 동일한 액수의 간접세로 대체하면서도 개인들의 노동 시간과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여가와 보완관계가 높은 상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레저 용품처럼 여가와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그 상품의 소비를 억제시킴으로써 여가의 소비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효율적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한 ‘콜레트와 헤이그’의 주장이 서술되고 있다.

전 부분에서 ‘리틀’은 차등적 세율 부과와 효율성을 언급은 했으나 방법은 찾지 못했다고 했다.

‘콜레트와 헤이그’가 바로 그 방법을 찾아 내었는데, ‘여가와 관련된 상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가와 관련된 상품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리틀’이 제시한 ‘여러 상품들에 차등적 간접세 부과’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쯤에서 선생이 하나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위 지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문의 외부에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들어온 설명이나 개념이 있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지문을 사실적으로 독해한다는 것이다.

지문을 바탕으로 배경지식을 사용하거나 지문에서 언급한 바가 없는 내용을 쓸 데 없이 추론하다 보면 시간만 흘러가고 정해진 시간 내에 지문을 읽어 낼 수가 없다. 지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문 내에서 사고하고, 지문 내에서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길 바란다.

그럼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자. 지문을 아무리 잘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문제 풀이에 적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주구장창 지문에만 매달리고 문제 풀이는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공부는 위험하다. 물론 반대의 경우는 더 위험하다. 문제를 통해 지문을 이해하고 추론하려는 습관은 국어 성적을 망치는 첫 번째 이유다.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습관만이 살길이다.

[문제 1] ‘차선의 문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레토 최적 조건들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을 때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차선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 ② 전체 파레토 조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선의 상황을 찾으려면 나머지 조건들의 재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 ③ 주어진 전체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최적 상태를 달성했던 부문의 효율성이 저하되기도 한다.
- ④ 차선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여러 경제부문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⑤ 경제개혁을 추진할 때 비합리적인 측면들이 많이 제거될수록 이에 비례하여 경제의 효율성도 제고된다.

‘차선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지만 절대 뺑카에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의 이해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다. 무조건 사실적 독해와 확인 !!!!

①번 선지는 우선 생각하자. 파레토 최적에 관한 개념 설명이 어느 문단에 있었던가? ㉠ 문단에서 사람들의 통념에 대해 ‘립시와 랭서스터’라는 두 양반이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이미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충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더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②번 선지를 보자. ‘나머지 조건의 재구성’이라는 꺼림직한 단어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이 말이 어떤 말을 변형한 것인지만 찾으면 된다. 찾았는가? 이런 똥똥이들!!!! ㉠문단의 “최적 조건의 일부가 항상 충족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찾아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조건 = 나머지 조건의 재구성’

아직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③번을 기대해 보자. ㉠ 문단에서 ‘차선의 문제’가 도출된 배경을 소개한 적이 있다. 굳이 근거 문장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하나의 왜곡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왜곡이 초래되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들 수 있겠다. 이 역시 ②번 선지와 같이 ‘새로운 왜곡’을 “효율성 저하”라는 단어로 바꾸었을 뿐이다. 우리가 이 정도 페이크에 속아 넘어갈 하수가 아니지. 사람을 뭇로 보고~~~

④번 선지는 또 역시 ‘차선의 문제’의 도출 배경을 묻고 있는 문제이다. ③번 선지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겠다. 하나의 왜곡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④번의 진술과 같이 경제 부분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진술이므로 ④번도 이상 없는 진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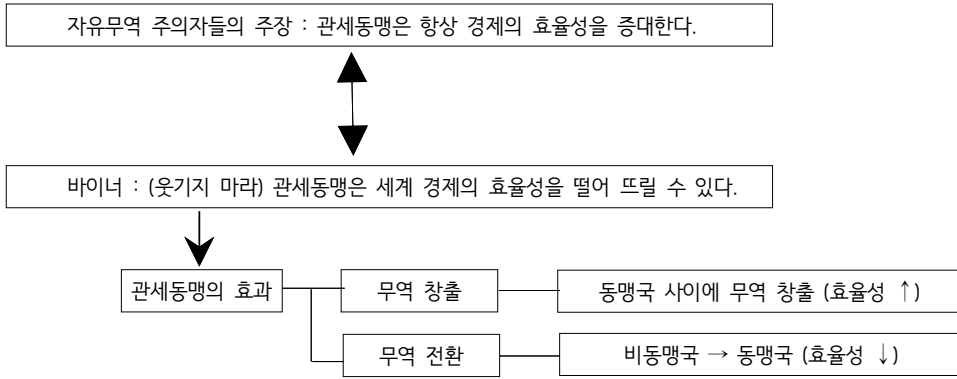
짜잔~ 그렇다면 답은 ⑤번? 확인해 보자. “경제개혁을 추진할 6비합리적인 측면들이 많이 제거될수록 이에 비례하여 경제의 효율성도 제고된다.” 이 진술은 ㉠ 문단에 제시된 사람들의 통념이다. ‘립 선생과 랭 선생’이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은 ⑤번이다.

어떤가? LEET도 별거 없다. 수능이나 LEET나 문제 풀이의 원칙은 다르지 않다. 여러분의 눈을 믿어라. 눈앞에 힘을 뺏 !!!

[문제 2] A, B, C 세 국가만 있는 세계에서 A국과 B국 사이에 관세동맹이 체결되었다고 할 때, ㉡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례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은? 4)

- ① 관세동맹 이전 A, B국은 X재를 생산하지 않고 C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관세동맹 이후에도 A, B국은 X재를 C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 ② 관세동맹 이전 B국은 X재를 생산하고 있었고 A국은 최저비용 생산국인 C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관세동맹 이후 A국은 B국에서 X재를 수입하게 되었다.
- ③ 관세동맹 이전 A, B국은 모두 X재를 생산하고 있었고 C국에 비해 생산비가 높았다. 관세동맹 이후 A국은 생산을 중단하고 B국에서 X재를 수입하게 되었다.
- ④ 관세동맹 이전 B국이 세 국가 중 최저비용으로 X재를 생산하고 있었고 A국은 X재를 B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관세동맹 이후에도 A국은 B국에서 X재를 수입하고 있다.
- ⑤ 관세동맹 이전 A, B국 모두 X재를 생산하고 있었고 A국이 세 국가 중 최저비용으로 X재를 생산하는 국가이다. 관세동맹 이후 B국은 생산을 중단하고 A국에서 X재를 수입하게 되었다.

2번 문제는 특정 인물의 관점을 묻고 있는 문제이다. 친절하게 ‘@바이너’라고 알려 주었으니 우리의 눈은 ㉡ 문단으로 가서 확인만 하면 된다. 우선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 문단의 내용부터 살짝 정리해 보겠다.



결국 바이너는 '관세동맹'이 맺어졌을 때 '무역 전환'이 발생한다면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선지에 '무역 전환'의 개념을 적용해서 효율성이 떨어진 경우만 찾으면 된다.

노파심에 한 번 물어 보겠다. '무역 전환'은 개념이 무엇인가? 지문으로 돌아가서 눈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두기 바란다. ② 문단에서 "(무역 전환)은 비동맹국들과의 교역이 동맹국과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것", "무역 전환은 공급원을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비용이 높은 국가로 바꾸는 것이므로 효율이 감소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①번 선지를 검토하자. ①번의 사례는 관세 동맹 이전과 이후에 무역 상황에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해, 무역 창출도 무역 전환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효율성의 저하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②번 선지에서 A국은 관세 동맹 이전에 최저 생산 비용으로 C국에서 X재를 수입하고 있다가 관세 동맹 이후 B국에서 X를 수입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렇다. 바로 '무역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지문에서 밝히고 있고, ②번 선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최저 비용으로 사 오던 것을 동맹국과의 교역으로 바꾸었으므로 효율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답은 ②번이다.

③번 선지와 ④번 선지도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지 여러분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답을 확인했다고 해서 나머지 선지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무림의 고수가 되려면 가끔씩은 시경 잡배들과도 칼을 겨루어 보아야 한다.

⑤번은 살짝 거들떠 보자. ⑤번 선지는 관세 동맹이후 동맹국 사이에 무역이 창출된 '무역 창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무역 창출은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하였으므로, 관세동맹이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바이너의 견해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예가 된다.

[문제 3] <보기>의 상황에 대한 ㉠ ~ ㉤의 대응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보 기>

일반 상품을 X와 Y, 여가를 L이라고 하고, 두 항목 사이에 파레토 최적 조건이 성립한 경우를 '⇔',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라는 기호로 표시하기로 하자.

㉠	㉡	㉢	㉣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황	X에만 간접세가 부과된 상황	직접세가 부과된 상황	X, Y에 차등 세율의 간접세가 부과된 상황
X ⇔ Y	X ⇔ Y	X ⇔ Y	X ⇔ Y
X ⇔ L	X ⇔ L	X ⇔ L	X ⇔ L
Y ⇔ L	Y ⇔ L	Y ⇔ L	Y ⇔ L

- ① ㉠은 직접세가 여가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 ② ㉠은 ㉡와 ㉢의 효율성 차이를 보임으로써 립시와 랭커스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③ ㉠은 ㉡와 ㉢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을 비판한다.
- ④ ㉠은 ㉡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립시와 랭커스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⑤ ㉠은 ㉡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를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효율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출제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보기>의 상황을 보고 “추론”해 보라고 하고 있다. 제발 하수같이 머리 굴리지 마라. ‘추론’은 ‘확인’의 다른 말일 뿐이다. 일단은 문제의 상황이 지문의 어떤 부분과 대응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	㉡	㉢	㉣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황 (파레토 최적상태)	X에만 간접세가 부과된 상황 (한 상품에만 간접세 부과)	직접세가 부과된 상황 (직접세 부과)	X, Y에 차등 세율의 간접세가 부과된 상황 (차등 간접세 부과)
X ⇔ Y X ⇔ L Y ⇔ L (효율성 모두 충족)	X ⇔ Y X ⇔ L Y ⇔ L (효율성 조건 중 1개 충족 / N - 2)	X ⇔ Y X ⇔ L Y ⇔ L (효율성 조건 중 1개 충족 / N - 2)	X ⇔ Y X ⇔ L Y ⇔ L (효율성 조건 중 0개 충족 / N - 3)

눈치 빠른 우리는 이미 이 출제자의 의도를 눈치 챘다. 어려워 보이게 알팍한 함정을 판 것 정도는 우리도 간파할 실력이 있지. 자, 우선 표의 위 부분은 ‘한 상품에만 간접세, 직접세, 차등 간접세’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 문단에서 본 세 사람의 견해를 비교하면 될 것 같고, 표의 아랫 부분은 효율성 충족 조건이 파괴된 개수를 말하고 있으니 ㉠ 문단에서 본 ‘립시와 랭커스터’의 견해를 살짝 써 먹으면 되는 문제처럼 보인다. 이제 남은 일은 해당 부분의 지문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만 남았다.

이쯤에서 피가 되고 살이되는 중요한 말 한마디 하고 가겠다.
지문에서 ㉠조건과 ㉡조건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선지에서는 ㉠ 조건을 묻고 있다.
학수의 접근법 : ㉠조건과 ㉡조건을 잘 이해하고 환하면 ㉠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거야.
고수의 접근법 : ㉠조건은 지문 속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틀린 선지야.
알아 듣겠는가? 선별리 환하기 전에 지문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라. 여려분이 보지 못한 내용이려면 적어도 지문을 근거로 볼 때 틀린 선지가 된다.

자 그럼 선지를 하나하나 벗겨 먹어 보자.
 ①번. “㉠은 직접세가 여가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①‘핸더슨’은 ㉢ 문단에서 ‘직접세(㉢)가 한 상품에만 간접세(㉡)보다 효율적이라고 했고, 여기에 관해 ‘리틀’은 ‘직접세가 노동시간과 여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서만 성립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므로 옳은 진술로 볼 수 있다.
 ②번. “㉠은 ㉡와 ㉣의 효율성 차이를 보임으로써 립시와 랭커스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리틀’의 주장을 확인해 보자. ㉢ 문단에서 ‘리틀’은 ‘한 상품에 부과된 간접세는 그 상품과 다른 상품들 사이의 파레토 최적 조건의 달성을 방해하게 되지만, 직접세는 여가와 다른 상품들 사이의 파레토 최적 조건의 달성을 방해하게 되므로, 직접세가 더 효율적인지 간접세가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리틀은 ㉡와 ㉣의 효율성 차이를 보인 것이 아니라 ㉡와 ㉣의 효율성 차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을 따름이다. ②번 진술은 ‘리틀’의 견해인지 어떤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②번은 잘못된 추론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번
 ③번도 보는 김에 다 검토하고 넘어가자. 힘빠지는 선지다. ②번 설명에서 이미 다 근거를 찾아 버렸다.
 ④번으로 가 보자. “㉠은 ㉣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립시와 랭커스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선지의 앞 부분 (㉠은 ㉣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뒷 부분 (립시와 랭커스터의 주장을 뒷받침)인데, 귀찮지만 ㉠ 문단에 제시된 ‘립시와 랭커스터’의 견해를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자.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이미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충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더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④번 선지에서 ‘콜레트와 헤이그’는 ㉣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은 N-2이고 ㉡는 N-3이다. 그러므로 충족되는 개수가 많다고 해서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콜레트와 헤이그’의 주장에 부합하는 예로 볼 수 있다.
 ⑤번 선지의 내용은 위의 설명과 ㉢ 문단의 내용으로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쉽지 않은 지문과 문제였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의 지문에 대한 장황한 설명 속에서 선생이 알려 주려고 한 하나의 의도는 바로 “확인”이다.

수능 국어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예상 아래에서, 많은 약장수들을 보게 된다.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도저히 시험장에서는 써 먹을 수 없는 추론 과정을 xx독해법이니 xxx 추론법칙이니 하면서 학생들에게 약을 파는 사이비들을 보면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다. 내가 그 놈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사과한다.

우리는 잊지 말자. 지금 칼을 갈아서 불구대천의 원수 ‘평가원’과 맞장을 틀러면 알뜰한 추론으로는 그 놈들을 이길 수 없다. 무림의 절대 고수는 작은 부분까지 확인하는 섬세함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뼈 속 깊이 알기 바란다.

[정답]

- 1) ㉞
- 2) ㉚
- 3) ㉚
- 4) ㉚
- 5) ㉚